자비의 행으로 큰 연꽃을 피게 하다

제6차 결집 70주년 기념식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Sixth Buddhist Council

행사 기간 | 2026년 4월 29일 ~ 2026년 5월 3일

장 소 | 6차 결집소 마하 파사나 동굴(Mahā Pāsāṇa Cave)



한국대표단 국빈 참석! 미얀마 '제6차 불교 결집 70주년 기념식' 성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을 비롯하여 자운, 심오, 월암, 현담, 대공, 청명, 정인, 대도 스님 등 대표스님들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합창단, 육법공양단, 의전원장 등 한국대표단이 미얀마 정부(종교성)의 국빈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불교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6차 불교 결집(Chatthasaṅgāyanā) 70주년 기념식'이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의 환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스러운 제6차 결집소인 마하 파사나 동굴(Mahā Pāsāṇa Cave)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매일 새벽 탁발(아침 식사) 공양 의식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4월 30일 아침에는 삼장(Pitakas)을 경배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와 함께 동굴로 향하는 장엄한 행진이 펼쳐져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대표단이 미얀마 정부의 공식 국빈 자격으로 초청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한국대표단은 미얀마 측의 각별한 예우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화합을 되새기는 모든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며, 경전결집에 1만달러, 딜라신사찰 건립기금 8천달러, 사찰복원기금 2천달러 등 총 2만달러를 전달했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종교적 교류를 굳건히 한 이번 70주년 기념식은 불교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세계불교도들에게 드리는 발원과 호소



국제불교기금 2만달러 전달식



존경받는 원로스님들과 함께



세계 불교의 화합과 연대



미얀마 대통령 경과 보고 (생방송 중계)

세계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자비와 실천의 길을 함께 열어갑니다.
국경과 전통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손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부처님 세상을 발원합니다.
수천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공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빛을 전하는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도메인 : 세계불교법왕청 .kr E-mail : moktak1@naver.com